

詩境의 아침

기차 안에서

김미영

중년 여자가 전화기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기차 안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처음에 여자를 잠깐씩 돌아보다가

나중에는 시선을 떼지 않고
끈질기게 노려보았다

여자는 슬쩍슬쩍 눈치를 보면서도
계속 소리를 질러댔다.

그럼 이따 만나요/ 잠시 후 더 큰 소리로 이따 만나요

그러고는 나도 사랑해요
그리고 잠시 후 한 번 더/ 목청 높여 사랑해요

여자의 사랑이
공해가 되려나 싶던 순간
사랑해요 할머니~!

그제야 사람들은 너그러운 얼굴
간혹 부러운 얼굴이 되어 여자에게서/ 고개를 돌렸다



<수필가가 본 시의 세상>



반전(反轉)의 묘(妙). 우리들이 무심코 겪는 어떤 상황들은 늘 반전을 품고 있으므로.....

기차 안에 있던 사람들은 불쾌하게 생각하며 그 중년의 여자를 노려보고 있었을 터였다. 공공 장소인데 어떻게 그런 큰 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 수 있을까에 화가 나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었다. 조용히 잠을 자려던 사람도, 사업 차 무슨 계획을 세우려던 사람도, 책을 읽고 있던 사람도, 멍 때리려던 사람조차도 그 여자의 큰 소리에 모두들 신경이 거슬러 있었을 것이었다. 그런데 '사랑해요'라니, 뭐지 이거? 사랑 놀음? 실연당해 속상해 있던 사람의 심경을 긁는 소리라니. 여느 성격 급한 사람이 확 소리를 내지르려는 급박한 상황이 생길려는 찰나에 그 큰소리를 치게 했던 사람의 정체가 드러났다. 중년 여자의 할머니였던 것.

그러니 나이가 좀 많았잖나. 그러니 귀가 제 기능을 하잖나 그러니 큰 소리를 질 수 밖에...

사람들이 말의 종알을 난사하려 장전했던 방아쇠를 스스로 놓게 된 것. "에휴 그것도 모르고" '그제야' 기차 안에 흐르는 너그러움...언제 불려도 좋은 할머니! 란 말. 기차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이빨 빠져 오물거리는 사랑 많은 자신들의 할머니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던 거지.

받아 치려던 성격 급한 사람이 "흐유, 고함쳤으면 우짤 뻔 했겠노?" 안심의 한숨을 쉬었던 거라. 그럴 때 중년의 여자가 "미안해요. 여러분" 했으면 오히려 더 미안해지지. (수필가 박모니카)

박대석 칼럼



박대석

예술통신 금융부문 대표

필자가 은행 재직 당시에는 3년을 주기로 순환제 근무를 시행했다. 조직에 활기를 불어넣으면서 한곳에 오래 있으면 고객과 유착 관계로 부정할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이다.

83년에 명성그룹과 상암은행 해화동지점 김동겸 당좌 담당 대리인 사채를 연결고리로 벌어진 대형 금융사건으로 생긴 제도이다.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하는 일보다 힘든 것이 인간과의 갈등이다. 특히 같은 직장에 있는 사람과 문제가 생기면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 누군가와 한번 관계가 엉망이 되면 좋은 관계로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은 경험해본 사람들은 잘 알 것이다.

가장 좋은 해법은 서로 안보는 것이다. 일반 기업은 내가 관두거나 상대방이 그만두어야 안 볼 수 있지만, 은행원은 그냥 꼭 잡고 지내면 3년 안에 순환보직 규정 때문에 서로 헤어지게 된다. 좋은 점이다.

인사이드를 해보면 두 부류의 직원이 있다.

먼저 적폐정신형 은행원이 있다. 새로 부임한 후 전임 직원이 한 일은 모두 부정하는 스타일이다. 한 6개월간 일을 하면서 매사 전임 직원 탓을 하느라 바쁘다. 규정 범위 내에서 거의 모든 것을 바꾸려고 노력하느라 주어진 직무에 대하여 진취적으로 업적을 이루는 것이 거의 없고 오히려 6개월 후쯤 되면 자기가 만든 쓰레기가 넘쳐 흐른다.

두 번째 목록 미래지향형 은행원이다. 일단 후임 보직자로서 전임 직원이 한 일을 인정하면서 그 바탕 위에서 맡은 일을 차근차근 발전시킨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업무 양식, 업무 보고, 고객관리 등을 자연스럽게 자기 스타일로 개선해 나간다.

당연히 업무성과도 좋고 직장 상하 동료 간 신뢰도 좋다. 그런 은행원은 소속장이 인사부에 특별사유서까지 제출하면서 3년이 지나도 다른 곳으로 안 보내려고 애를 쓴다.

주어진 일을 잘 하면서 잘못된 과거의 일은 그 일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둘씩 고쳐 나가야 한다. 그래야 성과가 나면서 조직 내에서 반발과 저항 없이 개혁된다. 이러한 현상이 은행에서 만의 일일까?

은행원과 미래로 가는 대통령(상)

한국 대통령의 권한은 실로 막강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자 국군통수권자로서, 대법원장 및 일부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일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권을 지닌다. 공무원 임면권, 사면 감형 및 복권의 권한은 물론이고 행정부를 구성하는 권한과 행정입법권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이 나라가 비상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긴급명령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계엄령을 발동할 수도 있다.

그 대통령이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하고 능력이 부족한 데다가 사심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한다면 그 나라의 장래는 암담하다.

표 계산하는 정치 공학만 있고 미래 없는 정치 지도자들

지난 4년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과거의 쓰레기통을 선택적으로 뒤지며 자기편 진영만을 구축하려 한 결과는 이번 서울 및 부산 시장선거에서 국민이 냉엄하게 심판하였다. 그에 대해서는 재론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도 정치

'감량'이 되는 다음 대통령을 고대하고 있는데 말이다.

그저 알팍한 솔수로 언론 활자나 미디어의 연출 사진을 장식하여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 착각한다.

지금 대학교수들이 위기라고 한다. 스마트폰만 다룰 줄 알면 자신을 가르치는 대학교수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보다 더 많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얼마 되지 않는 지식을 가지고 우려먹는 한 분야의 전문가가 살아남기 힘들다. 세상 대부분의 일이 복합, 융합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끝없이 변화하는 세상을 업데이트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물며 정치인들의 사랑밭일 이야기. 연출 쇼도 이제는 더는 통하지 않는다. 도리어 역효과가 날 것이다. 제품의 질이 안 좋으면서 광고만 요란하게 하면 1년 뒤에 망할 것이 한 달 만에 망한다는 광고계 경고가 바로 통하는 세상이다.

이번 시장선거 판도에 전체 유권자의 약 34%에 해당하여 중심이 된 MZ(15세~39세 사이) 세대, 20·30 세대에겐 전라도 경성도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진보와 보수라는 필자도 알 수도 없는 이분법 갈라치기가 무슨 관련이 있다는 말인가?

그들은 오로지 일자리, 집값 폭등 등 자신들의 불편한 현재의 처지와 미래의 불안감 때문에 현 정권을 심판한 것이다.

그런데 야당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본인이 흡사 무슨 큰 역할을 해서 야권이 시장선거를 압승한 것으로 착각하는 모양이다. 오만한 모습으로 자신이 하루 전 몸담았던 당을 오리떼로 폄하(貶下)하는 등 막말하는 모습을 보니 어안이 병병하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다음 선거에도 승패를 가를 젊은 세대는 현재의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지도자를 학습고대하고 그렇지 않으면 차선으로 현 정권은 무조건 버리는 선택을 할 것이다. 따라서 현 여권에서 대권을 꿈꾸는 정치인은 깊이 새겨 생각해야 할 일이다.

오죽하면 젊은 세대를 포함한 반 이상의 국민이 정치하겠다고 표현한 적이 없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유력한 대권 후보라고 설문조사에서 지지한다고 응답하는지 그 의미를 잘 생각해보아야 한다.

여야를 포함한 기존 정치인에게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국민의 메시지를 정치인들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 한심하기까지 하다. 이렇게 해석을 별도로 해야 하니 말이다.

<앤드마크 제공>



"비전을 제시하고 청사진을 제시하는 지도자가 안보인이다
여야 모두 권력을 잡기 위한 표계산 방식적만 풀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공무원은 3년 동안 9만여 명이 증가한 약 110만 명에 이르고 군인은 약 60만 명이고, 339개 공기업직원은 약 41만 명으로서 대통령은 직접 인구의 4%에 달하는 약 2백만 명 이상의 조직원을 통할하는 중추적인 자리이다.

덧붙여 문재인 정부는 세금으로 마련하는 한시적 공공일자리 104만 개도 늘리기로 하며 거의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한국의 1년 예산은 약 558조 원이고 국가채무 956조 원이며 공기업의 연간 총수입(국가지원예산 77조 원 포함) 673조에 달한다. 대통령은 한국의 명목 GDP 약 1조 6천억 달러 이상의 돈을 직·간접적으로 주무를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2백만 명의 인사권, 60만 명의 국방, 2100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통할하는 사실상 국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가 대통령이다.

국가란 한정된 자원과 시간, 공간이 분배하는 권한을 국민에게 위임 받는 조직이고 그 수장(首長)이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어떤 생각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국가는 물론이고 국가에 속한 국민의 현재와 미래도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니 정치가,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지도자들이 변하지 않은 태도이다.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어설피나마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는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다. 모두 권력을 잡기 위한 표계산 방식적만 풀고 있고 그에 따른 인기응변적 행동만 하려는데 혈안이 돼 있다.

평상시 국가에 대한 올바른 철학과 미래를 걱정하며 희망을 준비하는 정치인은 특별히 꾸미지 않아도 언제든지 나오는 말이 명연설이고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 말 솜씨가 비록 어눌하더라도 상관없다.

문재인정부가 쇼(연출)에 능하다고 일부 비판을 하지만 나머지 정치인들 모두 대동소이하다.

호남 출신 대권 후보는 영남이나 충청권 표를 얻어야 입심이 가능(대권)하고, 영남권 이른바 현 야권 후보는 호남 또는 진보를 포함한 중도 표를 얻어야 하니 내심과 관계없이 호남 가서 절하는 모습만 연출하는데 온갖 지혜를 짜내고 보여주기 바쁘다. 국민으로서 불쾌하기 그지없다.

상식에 어긋나도, 불법을 저질러도 무조건 머리가 깨져도 자기편만 이면 괜찮다는 극히 일부 그릇된 팬덤(fandom)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은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맡겨도 되는

경상매일신문 gsm333@hanmail.net 발행일 2006년 12월 4일 발행인 천기화 편집·인쇄인 이종근 편집국장 허경태 경북본사·우 37723 포항시 북구 삼호로 85 대표전화 054)253-7744 FAX 054)231-7703 대구본사·우 41260 대구시 동구 동대구로433 3층 전화 053)744-7100 FAX 053)742-7117 광고·구독신청/사건·제보 054)253-7744 등록번호 경북 가 00007 구독료 월정 10,0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사외(社外)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분리배출 핵심 4가지 비운다 → 헹군다 → 분리한다 → 섞지 않는다 유색 페트병·플라스틱과 구분해 분리배출해주세요! 공동주택 2020년 12월 25일부터 의무화 단독주택 2021년 12월 25일부터 의무화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에 따른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가 시행됩니다.